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1월 6일(수)

## 윤석열 대통령,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6, 수)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NATO 차원의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 NATO 북대서양이사회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정치안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브뤼셀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했으며,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ATO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초래된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NATO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루터 사무총장은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NATO-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와 아울러 한-우크라이나-NATO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NATO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 취임(10/1, 화) 이후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로, 정부는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